

도서관, 1020 이용 줄고 5080 핫플 됐다

학생·수험생 '스터디 카페' 가고
고령화에 장·노년층 이용자 급증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해
책 읽으며 '인생 이모작' 준비
전화통화·코골이·취식 부작용도



20일 50~80대 장·노년층 시민들이 광주시 서구 농성동 상록도서관 열람실에서 독서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광주의 도서관에 장·노년층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과거 도서관이 10~20대 학생과 수험생으로 발 디딜 틈 없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50대부터 80대까지 장·노년층의 '핫 플레이스'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학령인구가 줄고 '스터디 카페'가 인기를 끌며 도서관 이용자가 줄어들었지만, 장·노년층은 '인생 이모작'을 위한 공부를 하거나 비용 부담 없이 여가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도서관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방문한 광주 곳곳의 도서관 이용자들 중 여가잡이 40%는 고령층 이용자였다. 일부 도서관은 고령층 비율이 90% 이상인 곳도 있었다.

김옥규(77)씨는 매일 오전 9시에 광주시 남구 봉선동 문화정보도서관을 방문해 오후 5시 도서관 문을 닫을 때까지 책을 탐독한다고 한다. 나이 먹고 소일하기보다 커피도 저렴하게 먹고, 책도 읽을 겸 매일 도서관에 온다는 것이다.

김씨는 "젊었을 때에는 도서관에 안 왔는데, 요즘은 도서관 시설도 참 좋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니 이런 문화시설이 세상에 또 없다"며 "종일 도서관에서 쉬다가 산 하나만 넘으면 노인문화관에서 친구들과 당구, 탁구를 즐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구 일가정양립지원본부 행복도서관을 찾은 A(여·68)씨는 "집에만 머물다 우울증 걸릴 것 같아서 힘들었는데, 도서관에 다니면서 삶의 의지도 찾게 됐다"며 "돈 벌 때는 몰랐지만 정년으로 일을 그만두고 나서 도서관을 알게 됐다. 집에서는 같은 책을 봐도 안 읽히는데 도서관에 오면 마음이 정돈되면서 책이 술을 읽힌다"고 웃었다.

평균수명 100세 시대에 퇴직 이후 '인생 이모작'을 설계하는 5060 장년층 이용자도 다수였다.

김현욱(60)씨는 "손해평가 사정사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바빠서 공부하기 위해 도서관을 찾는다"며 "조용하니 공부하기 좋고, 칸막이 없이 트여 있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면 좋더라"고 말했다.

김광동(56)씨 또한 "지난해 말에 퇴직하고 공부도 하고, 보고 싶었던 책도 읽으며 시간 보내려고 매일 도서관을 온다. 요즘은 재무회계와 주식 관련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며 "도서관은 비용이 안 들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하니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 자주 온다. 도서관에 다니느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 다니던 패턴을 그대로 유지 중이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이 제공하는 '도서관 정보나루' 빅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25개 도서관의 60세 이상 회원 비율은 2023년 6.1%, 2024년 6.54%, 2025년 6.86%로 나날이 늘고 있다.

50대 회원 비율 또한 2023년 8.14%, 2024년 8.77%, 2025년 8.86%로 증가했다.

반면 청소년 회원은 2023년 9.41%에서 2024년 9.14%, 2025년 8.74% 등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30대 회원 또한 2023년 21.22%에서 2025년 19.34%로 감소했다.

또 도서 대출 회원들 중 60대 이상 회원의 비율은 2021년 3.79%, 2022년 3.7%, 2023년 3.66%, 2024년 3.63%, 2025년 3.38%로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 이용자들이 책을 대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책을 읽고 시간을 보내기 위해 도서관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고령층 이용자들이 도서관 내에서 전화 통화를 하거나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음식을 반입·취식하는 등 행태를 보여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령화 사회'로 인한 생활상의 변화는 비단 도서관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유치원이 사라지고 노인요양병원이 들어서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더불어 어민주당 전전속(광주 복구를) 의원이 전국 17개

사·도에서 제출받은 '장기요양병원 전환 현황'에 따르면 광주 지역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운영되던 24곳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이같은 현상이 가속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찍으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 1286명)의 20.0%를 넘어서었다.

불과 7년 만에 고령 사회(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에서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비율이 20%)로 넘어간 것이다.

광주의 고령 인구 비율은 2022년 15.1%→2023년 15.9%→2024년 17.51%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남은 고령인구 비중이 27.18%로 압도적으로 전국 1위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봄은 언제 오나

광주·전남 주말 최대 5cm 눈
다음 주 초까지 영하권 추위

주말 동안 광주·전남에 최대 5cm 눈이 내리고, 다음 주 초반까지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차가운 대기와 따뜻한 해수의 온도 차이로 인해 서해상에 구름대가 발생하고 광주·전남 지역으로 유입돼 주말동안 전남 서해안 지역을 시작으로 눈이 내리겠다"고 20일 예보했다.

눈은 전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다. 예상 적설량은 21일 새벽까지 0.1cm, 22일 1cm 안팎이다. 23일부터는 상층기압골의 영향이 더해져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에 1~5cm 눈이 쌓일 것으로 예측됐다.

오는 24일까지는 찬 북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강추위가 이어질 것이다. 21일~2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7~영하1도·낮 최고기온은 1~7도에 분포하겠다.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15m의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질 것이다.

건조한 날씨도 당분간 계속되겠다. 기상청은 20일 기준 여수와 광양, 순천 지역에 건조주의보를 발효했다. 북서풍 영향으로 대기의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25일부터 따뜻한 남쪽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차차 평년기온(최저 영하4~1도·최고 7~11도)을 회복한 뒤 다음 주 중반까지 대체로 맑고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주말 동안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 빙판길이나 도로살얼음이 생기겠으니 차량 운행시 감속하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사적지 멋대로 파헤친 광산구 무책임 행정 ▶6면



복스 - '바다의 천재들' '서양미술사' ▶14·15면

정호연 "미국서 한국축구의 힘 보여주겠다" ▶18면

尹 탄핵심판 최종 선고 3월 중순 나올 듯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도 시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든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이 시작했다. (관련 기사 3면)

윤 대통령은 20일 첫 형사재판에 출석한 뒤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해 정치인 체포 명단에 대해 '내란 음모론'을 거듭 제기했다. 탄핵심판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대부분 계열에 반대했다'며 '일부 찬성도 있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을 내놨다.

헌법재판소(현재)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열고 한 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이날 오후 현재 대심판정에서는 비상계엄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의 위법성 등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은 현재 재판정에 임정해 피소추인석에 앉았지만 변호인들과의 논의 후 한 총리 증인신문 전에 법정을 빠져나갔다가 홍 전 차장 증인신문에 다시 법정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일국의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심판정에 앉게 되고 총리께

서 증언하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고,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지 않고 퇴정했다"고 퇴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증인신문을 끝으로 현재는 그동안의 주요 증언과 사실관계 정리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중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가 추가로 증인을 채택하지 않으면 증인신문 절차는 이날로 마무리된다.

18일 9차 변론기일에서 한차례 정리를 했다는 점에서 최종 변론기일을 한 차례 정도만 잡을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는 3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기독교영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당신의 다음 클래스를 향해,
그리고 당신의 여유로운 삶을 향해

The new EQA & EQB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암 전시장 062)714-5001 & 광주 임곡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센터 BP 062)942-7200/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천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QA 250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5(도상: 5.4, 고속도로: 4.6) 1회 충전거리(km): 367, 공차중량(kg): 1985, 배터리 용량(kWh): 65.9

EQB 300 4M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4.1(도상: 4.3, 고속도로: 3.9) 1회 충전거리(km): 302, 공차중량(kg): 2135, 배터리 용량(kWh): 65.9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